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⑧

규원사화

□ 一沙 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時有軒輶者，聞知樞機敗走而蚩尤氏爲帝，欲代以爲君，乃大興兵，與蚩尤氏拒戰。蚩尤氏，大戰軒輶於鹿，縱兵四馳，軒殺無算，復作大霧，令敵軍心慌手亂，奔竄逃生。於是准岱 冀 之地，盡爲所據，乃城於鹿，宅於准岱，(遷徙往來，號令天下。) 蓋是時，中土之人，徒憑矢石之力，不解鎧甲之用又值，蚩尤氏法力高強，心驚膽寒，每戰輒敗，《雲 軒輶記》之所謂[蚩尤始作鎧甲 兜，時人不知，以爲銅頭鐵額]者，亦可想見，其狼狽之甚矣。蚩尤氏益整軍容，四面進擊，十年之間，與軒輶戰七十餘回，將無疲色，兵不退，後軒輶，既屢敗，乃復大興土馬，效蚩尤氏而廣造兵甲，又制指南之車，期日會戰。時蚩尤氏，仰觀(天)[乾]象，俯察人心，深知中土旺氣漸盛，且炎帝之民，所在團結，不可勝誅，各事其主，不可濫殺無(事)[辜]。乃決意退還，使兄弟宗黨，務要大戰而立威，使敵不敢生意進襲，復與軒輶大戰，混殺一(陳)[陣]，然後方退。此時，部將，不幸有急功，陣沒者，《史記》所謂[遂禽殺蚩尤]者，蓋謂是也。蚩尤氏，乃東據准岱之地，以當軒輶東進之路，及至其沒，漸至退 矣。今據《漢·地理誌》，其墓在平都，壽張縣， 鄉城中，高五丈。秦漢之際，住民猶常以十月祭之，必有赤氣，出如正絳，民名謂蚩尤(氏)旗，豈其英魂雄魄，自與凡人迥異，歷千歲而猶不泯者歟。

이때에 현원(軒輶)이란 자가 있어 유망은 패하여 달아나고 치우씨가 제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입금이 되고자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치우씨에게 대항하여 싸웠다. 치우씨는 탁록에서 현원과 크게 싸우며 병사를 풀어 사방에서 내려치니 참살시킨 자는 수도 없었으며, 다시 큰 안개를 일으켜 적군으로 하여금 마음이 흐리지고 손발이 떨리게 하니 (현원은) 급히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회대(淮岱)와 기연(冀)의 땅을 모두 점거하였으며, 탁록에 성을 쌓고 회대에 자리잡아서 옮겨 왕래하며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다.

대개 이때의 중토 사람들은 단지 화살과 돌의 힘에 만 의지할 뿐 갑옷의 쓰임이나 가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치우씨의 법사가 높고도 강함에 놀라치니 참살시킨 자는 수도 없었으며, 다시 큰 안개를 일으켜 적군으로 하여금 마음이 흐리지고 손발이 떨리게 하니 (현원은) 급히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회대(淮岱)와 기연(冀)의 땅을 모두 점거하였으며, 탁록에 성을 쌓고 회대에 자리잡아서 옮겨 왕래하며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다.

치우씨가 더욱 군대의 위용을 가다듬고 사방을 쳐나가며 십년동안 현원과의 싸움을 칠십여 차례나 하였으나 장수는 피로한 기색이 없고 병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후에 현원이 이미 여러 번 패하더니 이에 다시 병사와 군마를 크게 일으키고 치우씨를 흉내내어 군사들의 갑옷을 널리 제작하였으며, 또한指南(指南) 수레를 만들어 놓고 더불어 싸울 날을 기다렸다. 이때 치우씨가 우러러 천체의 형상을 관찰하고 굽어 민심을 살펴보니 중토에 왕성한 기운이 점차 번성해지고 또한 염제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굳게 단결하여 가볍게 모두 죽여 버릴 수 없으며, 더욱이 각각의 백성들이 그들의 군주를 섬기는데 무고하게 함부로 죽일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물러나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형제와 종실의 무리에게 힘써 크게 싸워 위세를 세움으로서 적이 감히 추격하여 습격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한 뒤, 다시 현원과 크게 싸워 한 무리를 도륙한 후에 비로소 물러났다. 이때 부장 가운데 불행히도 서둘러 공을 세우려다 진중에서 전사한 자가 있었는데, (사기(史記)에서 이른바 [마침내 치우씨를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한 것은 아마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치우씨는 이에 동쪽으로 회대의 땅에 할거하고 있으면서 이로서 현원이 동쪽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었으나, 그가 죽자 점차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지금 《한서·지리지(漢書·地理誌)》에 의하면 그의 묘가 동평군(東平郡) 수장현(壽張縣)의 감항성(鄉城) 안에 있다 하며 그 높이가 다섯 장(丈)이라 한다.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때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10월에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붉은 기운이 있어 한 폭의 진홍빛 비단과도 같이 솟아오른다고 하니, 백성들이 이를 일컬어 '치우기(蚩尤旗)'라 이를하였다. 이 어찌 영웅의 혼백이 범상한 사람들과 사뭇 달라 천년이 지나고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蚩尤氏雖然退歸，中土以是肅然，樞機亦不得復位，炎帝之業，以是永墜矣。自是軒輶代爲中土之主，是爲黃帝，而蚩尤氏兄弟諸人，乃永據幽青，聲威自是，黃帝氏亦不得自安，終其世，未嘗安枕高臥；《史記》所云[謂] [披山通道，未嘗寧居，邑于 鹿之(河)[河]阿]，遷(徙)[徙]往來無常處，以師兵爲營衛]者，蓋其戰兢之意，歷歷可觀，而《尚書·呂刑》亦云[若古有訓，蚩尤始作亂] 彼之畏戰，而出傳其訓，亦



韓明矣

치우씨가 비록 물러나 돌아왔지만 중토는 이로서 쓸쓸해지고 유망 또한 다시 그 제위(帝位)를 회복하지 못하여 염제의 유망은 이로서 영원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현원이 대신 중토의 주인이 되었으니, 곧 황제(黃帝)이다. 그러나 치우씨의 형제들이 모두 유청(幽靑)의 땅에 영원히 거처하며 그 명성과 위세가 계속되었기에 황제는 세상을 다 할 때까지 편안하게 배가를 높여 배고 누운 적이 없었다.

《사기》에 이른바 [산을 헤쳐서 길을 내어도 편안하게 기거하지 못하고, 탁록에 도읍만 정하고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 항상 거처하는 곳은 없었으며, 군사와 병졸들로 진영을 호위하게 하였다]고 한 것은 그 전전공공해 하는 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상서(尙書)》의 <여형편(呂刑編)>에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에 '치우씨가 오직 처음으로 난을 일으켰다'고 하였으니.....]라고 말한 것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대대로 그 교훈을 전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其後，三百餘年無事，只與少昊氏戰，破之，以至壇君元年前後，凡闢千歲，闕者，萬之稱也，今之稱久遠者，必曰闢千歲，闕千歲者，蓋神市氏之御世，至萬千歲，寔爲我國最長年代，故也。或曰神市氏之後，高矢氏與蚩尤氏，相繼爲君，前後合算，爲闢百歲，而壇君復立云，此說亦近理。大抵，太古之事，鴻荒(闕) [闕]遠，不可得而詳矣。

그 후 삼백여 년은 아무일 없이 단지 소호씨(少昊氏)와 더불어 싸워 이를 격파하였을 뿐이니, 단군 원년에 이르기까지 전후하여 무릇 괘천년(闕千歲)이 된 다. '괄(闕)'이란 '만(萬)'을 가리키는 것이다. 양치(童支) 오주 오래 되었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괄천년'이라 말한다. '괄천년'이란 아마도 신시씨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로 1만 1천년이 흘렀다는 것이니, 진실로 우리나라가 가장 긴 연대를 지녔다 함이 그러한 까닭에서이다. 혹은 신시씨의 뒤로 고시씨가 치우씨와 더불어 서로 계속하여 입금이 되었으니 그 앞뒤를 합하여 보면 1만 1백년이 되고 단군이 또 다시 나라를 일으킨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얘기 또한 이치에 가까우나 대저 오랜 옛적의 일은 너무 오래고 멀어서 상세하게 알 수 없을 따름이다. (다음호에 계속)



귀인에게 죽은 동진의 황제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시대에 동진(東晉)이 오후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온 지도 8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때 동진의 황제는 효무제 사마요(司馬昱)였는데, 사마요는 간문제의 뒤를 이어서 11살 때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나이가 어려서 태후가 섭정하다가 14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친히 정사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사마요가 황제로 있는 동안 북조를 통일한 전진(前秦)의 부견이 쳐 내려오는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비수(灑水)의 전투였다.

이 위기를 만나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안도 뾰족한 방책을 내지 못하였는데 다행하게도 운 좋게 동진이 승리하였다. 이 여파로 북조에서는 동진을 항상 위협하던 전진이 멸망하고 후연, 후진, 서진, 후량, 북위, 서연 등 여섯 나라로 분열된 것이다.

잘하지만 한다면 다시 동진이 옛날 서진(西晉)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정말로 좋은 운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運)이 좋았다고 하여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좋은 운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른다면 좋은 운은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진에 화를 불러 온 것은 황제 사마요의 솔버튼 때문이었다.

물론 사마요가 황제가 되어 처음으로 정사를 친히 다스리게 되고 나서는 위엄과 권위를 세웠고 또 넓은 도량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술과 여자에 빠졌는데, 이를 《진서(晉書)》에는 '술에 취하여서 깨어 있는 날이 적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황제 사마요는 자기의 업무를 친동생인 낭야왕(琅邪王) 사마도자(司馬道子)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사마도자 역시 술을 좋아하여 황제인 형과 더불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것으로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를 위임받은 사마도자는 말할 수 없는 산을 만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 황제

가 술에 취하여 있으니, 동진에 좋은 운이 다가 왔다고 한들 그것을 볼 줄도 몰랐고, 더구나 이용할 줄도 몰랐다.

거꾸로 해석해 보면 북조의 오후가 남쪽으로 내려 올 것이라는 위협이라도 있었다면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북조가 여섯 나라로 나뉜 것은 달리 보면 동진의 화(禍)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과 화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진(東晉)의 양면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드디어 동진의 황제 사마요는 술잔치는 내전(內殿)에까지 이어졌고, 총애하는 후궁인 장귀인(張貴人)과 함께 기생과 악대들을 불러 연회를 즐기었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황제 사마요는 장귀인을 희롱까지 하였다.

"나는 나이로 보아서는 역시 마땅히 폐출되어야 한다. 내 마음은 다시 어린 사람에게 가고 있다."

이제 겨우 30살이 된 귀인에게 늙었다고 하면서 어린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자기를 쫓아내겠다는 이 말을 들은 장귀인은 화가 났다. 다만 겉으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저녁이 될 무렵에 사마요가 술에 취하여 청서전(淸暑殿)에서 잠을 잤는데, 장귀인은 환관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흠여지게 하여 보냈다. 그리고 나서 비녀(婢女)를 시켜서 이불로 황제 사마요의 얼굴을 덮어씌우게 하여 그를 시해(弒害)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뇌물을 준 후에 말하였다.

"가위에 놀려서 갑자기 붕어(崩御)하셨다." 황제가 술김에 농담 한마디 하다가 애첩에게 죽은 것이다.

동진 효무제만 북이 화가 되고 화가 북이 될 수 있음을 모른 것일까?

우리 주변에 날려 오는 북과 화는 자기 가 하기에 따라 다른 것을 안다면 매일 북 받기를 빌 것이 아니라 북 받을 행동에 해야 할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흔흔한 美談뉴스

10억보다 더 빛난 100만원의 기부

장애인 구두수선공 권기욱씨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지난해 12월27일 동대문구청에 100만원을 기부한 지체장애 3급, 흔흔한 미담, 얼굴 없는 천사 주인공(권기욱씨)을 지난 1월3일 오전 8시40분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제기역 구두수선방에서 만났다.

이에 권기욱씨가 청빈한 독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지난 FOCUS신문(2013.1.3. 6면 행복뉴스)에 난 기사를 전 재한다.

"적은 돈이지만 기부를 위해 오래전부터 모아온 돈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알려지게 돼 쑥스럽네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제기역 3번 출구 근처에 작은 구두수선방이 있다.

권기욱(66)씨는 지난달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00만원을 동대문구청에 기부했다.

권씨는 2일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길 한 사교 거부하면서 "기부에 뜻이 있어 매일 몇천원씩이라도 모아 100만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웠을 때 손이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이다. 구두수선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자신도 형편이 넉넉지 않다.

권기욱씨는 살신성인의 기부자! 안동 권문은 양반이라 한다. 새해에는 지(志)와 의(義), 그리고 련(廉)과 애(愛). 이 네 가지 선비사상을 행위규범으로서 실천하는 현장의 선비로, 능력껏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

(권오복 편집위원)

미니정보

權寧東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총괄조정 본부장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찾고 세계에서 필치자'로 안동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權寧東(씨, 안동)는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방송大, 영남대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어 경북도청 기업노사과장·일자리창출담당·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경력을 거쳐 고령군부군수를 역임했다. 현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총괄

조정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안동을 세계 속으로 알리며,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기자)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영한(부총재) 100만원
△권종준(감사) 100만원
△권세도(부총재) 100만원
△권재주(부총재) 50만원

소 계 35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오길(김천) 20만원
△권정환(상주) 20만원

소 계 40만원

□ 대의원회비
△권창용(예천) 10만원
△권중화(광주) 10만원
△권오성(봉화) 10만원
△권오성(음성) 10만원
△권영주(금천) 10만원
△권기택(청주) 10만원
△권유순(함양) 10만원
△권혁기(봉화) 10만원
△권용오(서초) 10만원
△권우선(안동) 10만원
△권영택(문경) 10만원
△권장은(안동) 10만원
△권위수(함양) 10만원
△권운수(의성) 10만원
△권한걸(영등포) 10만원
△권선만(대전) 10만원
△권영면(대전) 10만원
△권태근(수원) 10만원
△권영태(구미) 10만원
△권영화(구미) 10만원
△권정택(상주) 10만원
△권부득(제천) 10만원

소 계 220만원

합 계 610만원



바로잡습니다

본지 <2012년 12월1일 제450호 3면> 검교공추항 및 정총 기사란에 권태욱고문에 이어 1984년 이후 파조 설단 경과보고 누락되고 권태인 감사를 권태삼 감사로 바로잡습니다.